

## 광야에서 주신 절대시스템과

## 오늘날 주신 완전복음시스템

레위기 23:1-7, 히브리서 10:25

정윤돈 목사님

“우주 만물을 말씀 한 마디로 창조하시고 오직 인간만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어주시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귀에게 속아 이 땅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저희에게 완전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언약의 여정을 걸을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WRC를 통해서 미리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할 수 있는 절대언약을 새로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계획과 언약과 여정, 목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서 남은 자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동일하게, 더 크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모든 가정, 모든 현장, 개인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미션홀로, 전문교회로, 지교회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후, 사나산에 도착하여 약 1년 3개월 동안 머무는 기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은 제사제도와 정결제도에 대한 내용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되어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고, 레위기 전체의 주제 성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이다. 예배의 중심은 그리스도이다. 레위기는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암송시키는 성경이 레위기라고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생활을 할 때 중요한 영적인 절대시스템들을 주셨다. 그 영적인 시스템은 율법, 성막, 절기와 성일제도, 대표적으로는 안식일이다. 그리고 제사장제도와 정결법을 주셨다. 율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십계명이 있고, 성일제도는 대표적으로 안식일이다. 오늘은 이 중에서 제사제도와 7대 절기와 정결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그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

### 1. 첫 번째로, 광야에서 주신 절대시스템 중에서 제사제도와 절기와 정결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제사의 종류와 제사법이다. 피 있는 제사의 종류에는 57가지가 있다.

① 반제는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대속해 주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이다. 가족은 제사장에게 주고, 그 외에는 모두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내 원죄가 해결되면 육적인 축복도 받게 된다.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번제의 전도자의 삶을 살면 생명을 구하는 응답을 받게 된다.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만큼 영육간의 축복을 받게 된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항상 영적인 부분, 전도인 것이다.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런 증인이 되는 교역자, 중직자, 램넛들 되기를 축원드린다.

② 소제는 삶에 대한 감사와 자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보면 실수나 잘못을 할 때가 있다. 싸우고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잘못 사용하였습니다.’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소제이다. 그러므로 소제는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리도록 되어 있다.

③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예배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이다. 이 화목제에는 세 종류의 화목제가 있는데,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이다. 감사제는 감사의 조건이 발생하였을 때 드리는 헌금을 의미하고, 서원제는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바라며 드리는 헌금이다. 그리고 낙헌제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을 의미한다.

④ 속죄제는 일반적인 죄들에 대한 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배상을 해야 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사회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속건제는 이웃에게 해를 입힌 자가 드리는 제사이다. 속건제에는 피해를 준 상대에 대한 보상, 변상이 따르는 제사이다.

(2) 다음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다. 제사의 방법에는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4가지가 있다.

① 화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부흥회, 통성기도이다.

②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다. 찬양할 때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③ 거제는 제물을 높이 드리는 것이다. 두 손을 들고 드리는 기도나 찬양이다.

④ 전제는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이다. 이 제사방법은 복음소식, 구원의 길 등 복음메시지, 영접메시지 중심의 예배,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대하여 강조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다. 현장에서 다락방, 지교회에 가면 주로 복음 중심이다. 바로 전제를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잠시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을 드리는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다. 이 순서는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다. 1장 3절에 보면 제주, 백성들이 흠 없는 짐승을 성막 앞으로 가져온다. 흠 없는 짐승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1장 4절에는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한다. 내 죄가 소와 양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 때부터 그 소와 양은 그리스도, 나 자신, 사단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지 않으셨는가. 그 다음은 레위기 1장 5절에 나온다. 제주가 소와 양을 죽인다. 머리카락이나 목을 잘라서 직접 죽여야 한다.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된다. 내가 죽고,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야 한다. 레위기 1장 5절에서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 그리고 레위기 1장 6절에서는 송아지의 가족을 벗기고 각을 뜬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강단메시지의 제사가 되어야 한다. 읽고 또 읽어서 각을 뜬 것이다. 그래야 내 것이 될 수 있다. 내 구원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 1장 9절에서는 제사장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다. 이것은 전도자의 사역이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데 이 냄새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우리들이 드린 예배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생의 피와 성령의 불로 모두 소멸되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WRC와 모든 예배와 찬양의 시간은 우리들의 모든 죄가 태워지는 시간이고 그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다.

(3)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지켜야 할 7대 절기의 절대시스템을 주셨다. 그 7대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와 같다.

① 유월절이다. 유월절은 첫 번째 절기로,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피를 바르는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의미한다.

② 무교절은 유월절 후에 일주일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켰던 절기이다. 이것은 구원을 받은 후에 애굽에서 확실히 빠져 나와야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홍해까지 건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초실절이다. 이 절기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④ 오순절은 보혜사 성령께 강림하신 날이고 교회의 생일이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다. 그 때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탄생한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이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⑤ 나팔절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⑥ 속죄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 속죄일을 대속죄일이라고도 한다. 대속죄일에는 두 마리의 염소를 가져야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의 것으로 선택해서 광야로 보낸다.

⑦ 다음은 초막절(수장절)이다. 초막절(수장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 그리스도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절기이다. 7일 동안 초막절(수장절)을 드린다. 현대교회에서는 구약의 제사가 예배로 바뀐 것처럼,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지키지 않고 이 시대에 교회에 주신 복음적인 절기를 지키고 있다.

(4)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일의 제도를 주셨다. 그날이 안식일과 월삭이다. 월삭이란, 매달 첫 번째 날에 드려지는 제사를 의미한다.

(5) 그리고 거룩한 해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것이 안식년과 화년이다. 안식년과 화년을 깊이 연구하면 오늘 날에도 중요한 답을 줄 수 있는 절기이다. 안식년은 최고의 복지시스템이다. 그리고 화년은 부동산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50년이 지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제도가 화년이다.

(6) 다음은 정결법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레위기 15장 전체는 유출병과 여러가지 전염병에 대한 정결법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이 유출병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다. 전염병에 대한 정결법을 몇 가지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다. 레위기 15장 6절에 보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고 전념될 수 있으니 저녁까지 격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레위기 15장 6절이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또, 레위기 15장 8절을 보면 전염병에 걸린 자가 침을 뱉어서 그 침을 맞은 사람은 옷을 빨고 부정하니 저녁까지 격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 2.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되어야 할 완전복음을 위한 영적시스템들은 무엇일까?

(1) 오늘날의 제사는 예배이다. 현대 교회에 와서는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와 절기제도가 예배로 변화되었다. 현대에 드려지는 예배는 주일예배, 주일오후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 새벽예배, 구역예배, 다락방예배, 지교회예배, 서밋타임(홀로다락방) 등이다.

(2) 오늘날 변화된 절기제도 몇 가지를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기독교의 전통적인 절기는 맥추감사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다.
- ②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는 세계렘넌트대회인 WRC, 선교대회, 산업인대회, 중직자대회 등을 들 수 있다.
- ③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랩넌트데이가 있다.
- ④ 전국에서 전도제자들이 훈련을 받는 날이 있다. 그 날이 화요집회와 새가족수련회이다
- ⑤ 그리고 헌신을 위한 주일을 지키고 있다. RU주일, 총회주일, RTS(총회신학교)주일이 그것이다.
- ⑥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전도학, 산업선교모임과 핵심모임이 있다.
- ⑦ 이 외에 20가지 전도전략과 전도캠프와 집중훈련, 237훈련을 하고 있다.
- ⑧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일예배들이 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집회와 모임이 있다. 이것을 보고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히브리서 기저는 모든 절기와 성일과 모임을 뛰어 넘어 신약시대에 붙잡아야 할 절대목표와 미션을 주셨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구약시대와는 달리 신약시대는 일정 절기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일요일만이 주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 되어야 한다. 주일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모든 날이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이다. 우리교회에서 하는 복지현장과 비전스쿨, 애프터스쿨도 전문교회, 지교회의 현장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365일 매일 미션을 실행하고 인턴십과 말씀포럼을 할 수 있는 상담, 복지, 교육 시스템을

을 만들어야 한다. 4차 산업과 코로나 이후 시대를 교회에서도 미리 보고 미리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상, 유튜브, 줌, 화상통화, 카카오톡 등 SNS소통 등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더 깊은 소통과 양육과 모임을 효과적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4차 산업시대는 정치, 경제, 의료, 직장 등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미국의 한 대학의 조교가 인공지능이었지만 1년 동안 학생들이 아무도 눈치 채지 못했다고 한다. 앞으로 의사의 진단과 인공지능의 진단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신뢰할까? 가천대 병원에는 이미 인공지능진단시스템을 도입했다. DNA 유전자 분석 키트를 통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예방하고 처방하고 치료하는 바이오시스템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더 연구될 것이다. 빅데이터를 통한 재판시스템이 나오면 판사와 변호사의 역할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은행의 역할도 많이 축소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랩넌트들에게 이러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미션과 인턴십과 사실적인 미래에 대한 포럼을 해주어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 할 수 있게 그리고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4차 산업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담당해야 할 빈 곳이다. 4차 산업과 인공지능이 자숙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영생을 줄 수는 없다. 인간들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 할 수는 없다.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없다. 인간에게 닥치는 재앙과 저주는 해결 할 수 없다. 그리고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안겨다 줄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생명운동을 해야 한다. 다산운동, 가정을 지키는 사역을 해야 한다.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또 남은 시간에 전도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과 237나라와 선교를 해야 한다. 아마 인공지능이 최고로 발달한다면 성경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내려줄 것이다. 그러나 그 때까지는 우리들이 전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때 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다. 어떠한 상황과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현장에서 예배에 성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 드리겠다.

오늘도 레위기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CVDIP를 발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의 영원한 언약은 모든 제사와 절기와 예배의 주인공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광야에서 주신 절대시스템과 재창조된 예배시스템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예배만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미래가 생생하게 보일 정도로 집중해서 기도해 보기 바란다.
5. Practice, 실천이다.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을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들의 인생은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나갈 영원한 작품이 될 것이다.

전염병으로 인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초대교회성도들처럼 현장을 미션홈과 지교회로 만드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축원 드린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대 언약,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더욱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목표를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전 세계, 237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